

“삼천대천 우주 깨부수고, 산 채로 황천 가리”



모든 것을 사랑하며 간다
박노자 · 에를링 키텔센 풀어 엮음
책과 함께 떠남/1만5천원

한국과 중국, 일본 승려들의 임종계 60편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임종계들을 풀이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역사학자 박노자 교수다.

한 편의 임종계를 두고 함께 대답을 나누는 사람은 노르웨이 시인 에를링 키텔센이다. 동아시아 선사들의 임종계가 한국을 비롯해 비서구권의 시 작품을 번역해온 시인과 오슬로 대학의 동아시아학 및 한국학 교수를 만나게 해준 것이다. (모든 것을 사랑하며 간다)(부제: 한중일 승려들의 임종계는 두 사람이 노르웨이어로 펴낸 임종계 모음집 (Diamantfjellene (금강산))의 번역본이다.

박노자는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관계로 임종계들을 불교 전통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 했고, 에를링 키텔센은 스칸디나비아 신화 등 자국 문화를 이용해서 임종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이고득락(離苦得樂)한 인간이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체질적 무의식에 어떤 이론적 근거를 대려고 하는 인간의 본원적 마음을 불교라고 폭넓게 바라본다면, 이러한 시도는 낯설지만

유의미하다.

불교적 시구를 이질적인 맥락 속에서 풀이함으로써 그 전복적 성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제자들과의 대화 일부분인 임종계들을 독백이 아닌 대화로 풀어냄으로써 상대적인 깨달음의 언어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한다.

선사들이 '나'와 '만물'을 상대화시키는 데 성공한 그 순간의 회열로 쓰는 오도송(悟道頌), 또 죽는 순간에 이해되는 '나'와 '세계'의 진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임종계(臨終偈), 이 작품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복종을 전제로 하는 사후 안락의 세계관이 아니라 나와 만물의 상대화를 통해 삶과 죽음을 긍정하려는 것이다.

덧붙여 임종의 순간 발휘하는 놀라운 타자 지향성이야말로 죽는 사람의 인생 전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을, 그리하여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가 얼마나 복된 축사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선사들은 오도송(悟道頌)이나 임종계(臨終偈)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완성하고 아무런 짐작 없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 책은 '나'와 '만물'을 상대화하는 데 성공한 순간의 회열로 가득하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의 전복, '나'와 '세계'의 상대화를 통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노래한다. 눈이 이마까지 덮였 정도로 내리는 가운데 참선 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해심 스님은 죽기 직전에 쓴 시를 통해 죽음을 '고통이 없는 열반의 커다란 고희함'으

로 받아들인다. 또한 기근과 전화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다간 세우 스님은 언젠가 생사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하늘에 뜬 둥근 달'로 표현했다.

이처럼 선사들의 임종계는 '최후의 설법' 역할을 했다. 나아가 한 편의 문학작품처럼 전복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임종계들도 있다.

"이제는 모든 걸 떨쳐버려 삼천대천의 우주를 깨부수네. 어허, 이제 온몸으로 구할 것 없으니 산 채 황천에 가리라"(도원 스님) 여기서 처럼 도발적이거나 자극적인 글들을 통해 '깨침'을 더 빨리 이루게 하는 마지막 '사자후'

임종계, 선사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심 한중일 스님들 임종계 60편 뽑아 “나와 만물의 상대화로 죽음 긍정”

가 곧 임종계다. 또한 생의 한계를 벗어난 선사들의 임종계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한 개체의 자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준다.

"강법에 잘못과 실수가 많아, 서쪽을 가리키는데 도리어 동쪽을 향한다"(호암 체정),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거나, 임종계를 남길 이유가 없네"(원오 극근), "육십삼 년 동안 한 마디 설법도 안 했었네"(경당 개원) 등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 공(空)을 직시할 용기를 주는 것보다 더한 자비심은 없을 것이다.

박노자 교수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약자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물과 사상》 등에 불교 관련 글을 다수 연재하기도 했다.

이 책은 승려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궁극적 진리를 전달한 임종계에서 진정한 진보적 심성, 곧 '자비심'을 발견하고 그 국역 및 해설 작업에 몰두한 결과물이다. 그가 선불교의 죽음관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그것이 '복종을 전제로 하는 사후 안락의 세계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과 죽음의 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 수록된 57인의 선사들은,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죽음은 삶의 유기적 일부부분임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경지를 보여준다.

박노자 교수가 보기에 이런 경지는 선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타적인 동기를 강하게 지닌 이들이야말로 달리 보면 선불교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지는 자비심이라는 원시불교적 덕목을 더 많이 지녔다고 본다. 그래서 박노자 교수의 임종계 해설은 선사들 각각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한 편의 임종계만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삶의 궤적을 하나의 작품으로 분석했다. 전란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국가의 부름에 어떤 답을 했는지, 깨달음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통해 임종계를 신비화하지 않고, 임종계 또한 전복시키는 도전적 태도를 보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 인류가 살아갈 해법은 '관계와 협력'의 키워드인 여성

여성이 답이다

지연 스님 지음 | 종이와 거울 떠남 | 1만2천원



여성이 답이다. 이 책은 공부하는 주부(일명 공주)들은 명품이나 겉모습보다 내적인 교양을 원하는 여성들로 탐바꿈하고 있다. 그것들의 무상함을 체감으로 알기 때문이다.

교양 쌓는 첫 번째 일로 공주들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생각의 힘, 그것이 삶의 근본이다.

인생, 삶의 성패는 결국 생각에 달렸다. 사람은 '생각의 힘'을 갖췄을 때, 능력이 발휘되고 사람이 돋보인다. 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양의 핵심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공부하는 주부들이 등장하여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우리 사회는 매우 바람직할 뿐 아니라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선진국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여성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출가수행자가 여성에 대한 자신의 부족한 이해와 다소 왜곡된 시각이었음을 진술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나아가 출가수행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남성중심의 매카니즘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전한 인격적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남녀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의미있는 일이라는 걸 말한다.

여성성을 담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여성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 즉 도덕성, 분배, 이념 등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와 협력'의 상호관계와 상호협력에 갖는 본질은 '무상(無常)·무아(無我)'이다. 흐르는 시간과 텅 빈 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무상·무아'는 철저히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오로지 이런 태도만이 '관계와 협력'의 인간존재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은 어머니를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모른다. 더욱 여성들이 여성성을 모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성'을 바로 알아 삶에 활용할 때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

'관계와 협력'...여성 자신의 존재가치 '여성성(女性性)이 답이다.' 도는 여성성과 닮아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위기에 둘러싸인 우리 사회와 현대 인류가 살아갈 방법, 여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관계와 협력'의 존재형으로 돌아가는 키워드가 여성성이라는 말을 한다.

여성성의 모든 것, 덕성들의 총합은 '관계와 협력'의 산물이다. 아니 '관계와 협력'에서 인간의 덕성들이 태어난다. 그럼으로 '관계와 협력'은 여성의 덕성, 인간의 덕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여성들의 이 덕성들은 여성자신의 존재가치다. 나이가 인간의 존재가치가 되어

'관계와 협력'은 존재의 실상 '무상과 무아', 내재돼 있어

야 한다. 여성성을 알아보는 남성이 있을 때나, 여성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여성성은 한층 빛난다.

관계에서 '협력'을, '협력'에서는 '관계'를.

마음을 찾는 것은 곧 참된 '나'를 찾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를 찾는 것이다. 바로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다.

'관계'와 '협력'은 분명 두 단어이되 한 곳을 지향하고 있다.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분명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不二). 그렇다고 '하나'라고 막아서도 안 된다. 두 가지 제각각이 갖는 가능성이 축소되거나 제한받기 때문이다. 다만 이 둘은 자신 속에서 서로를 보고 필요로 할 뿐이다.

'관계와 협력'의 상호관계와 상호협력에 갖는 본질은 '무상(無常)·무아(無我)'이다. 흐르는 시간과 텅 빈 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무상·무아'는 철저히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오로지 이런 태도만이 '관계와 협력'의 인간존재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가능케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시대와 종교 초월한 백행의 근본 '효'

온몸으로 읽는 지구촌 효이야기

역은이 박영재 | 본초 펴냄 | 9천원



효란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근원적인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존재하는데 있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부모님이 자식을 자기 자신 이상으로 사랑하고 자식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은 절대적인 성품인 것이다. 이에 지구촌 구석구석 편재해 있으며 시대와 종교를 초월해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과 동양과 서양의 진솔한 '효' 이야기들을 골라 뽑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하였다. 시대와 종교를 초월한 '지구촌 효 이야기'를 담다

1부 1장 '한국의 효'에서는 서산대사와 진묵대사의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효심을 잘 엿볼 수 있으며, 서포 김만중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밤을 새워 쓴 소설 (구운몽) 이야기, 연암 박지원의 '봉산학자전'을 지은 이유를 통해서 학식은 별로 없어도 효를 포함해 배운 바를 꾸밈없이 실천하면 거짓 군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점을 잘 성찰해 볼 수 있다.

2장 '동양의 효'에서는 삼보정재(三寶淨財)를 축내지 않고도 지혜롭게 어머니를 잘 봉양했던 목주 선사의 일화와 참 본성을 깨닫기를 영원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유언장을 남긴 일후 선사 어머니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2부는 주로 재가의 선 수행자들의 효와 불효에 관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생생한 체험담을 다루었으며, 3부에서는 종당 선사께서 1970년대 초에 월간 (법시)에 제창하셨던 <부모님중경>을 통해 구구절절이 부모님의 한량없는 고마움과 그에 대해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老정신과 전문의의 재밌게 인생 사는법

나는 죽을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후 지음 | 갤리는 펴냄 | 1만4천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011년 76세의 나이에 고려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최고령이자 수석으로 졸업해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가 10년 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협착, 담석 등 일곱 가지 병과 함께 사는 한마디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점이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느냐고 물으면 그저 재미있어서라고 말한다. 그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2년, 학술단원으로 처음 네발을 방문했다. 그때부터 시작한 네발 의료 봉사를 지금

까지 30년 넘도록 계속 해 오고 있다. 또 군의관 시절 광명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 역시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그는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 원장으로 청소년 성 상담, 부모 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 준비 교육 등을 펼치고 있고, 시 낭송 모임과 영화 동아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정탁 일고를 쓴다.

그에게 인생을 사는 비결을 물었더니, 무엇이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 삶이었다고 회고했다. 누구나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재미있게 사는 인생이란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이 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지 못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주일 기자

정체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속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인.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인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공 고

삼보에 귀의하합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범행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고(古) 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